

# 소득 상위 20% 연봉 9900만원...하위 20% 소득의 15배

진선미 민주당 의원실, 국세청 자료 분석  
하위 20% 654만원...2017년보다 21.6% ↑  
1인 평균급여 4024만원...4000만 첫 돌파  
0.1% 9억5615만원 벌어...중위 3004만원

근로 소득자 상위 20%의 소득이 9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의 15배에 달하는 소득을 벌어들이는 셈이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상위 20%의 평균 근로소

득은 2021년 9898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20% 소득은 654만원이었다. 이에 따라 2021년 근로소득 5분위 비율은 15.1배로 집계됐다. 근로소득 5분위 비율은 5분위(상위 20%)의 소득이 1분위(하위 20%)보다 몇 배 많은지를 알 수 있는 지표다. 즉 상위 20%인 근로자의 소득이 하위 20%보다 15.1배 많다는 의미다. 근로소득 5분위 비율은 2017년 16.3배에서 2018년 15.2배, 2019년 14.6배로 감소하다가 2020년과 2021년 15.1배로 벌어졌다.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소득 증가 폭은 상위 20%보다 하위 20% 근로자가 더 컸다. 2017년 상위 20%의 평균 소득은 8770만원에서 2021년 9898만원으로 12.9% 늘었다. 같은 기간 하위 20% 근로자의 평균 소득은 538만원에서 654만원으로 21.6% 증가했다. 전체 근로자 1995만9148명의 총급여는 803조2086억원으로 1인당 평균 급여는 4024만원으로 조사됐다. 근로자 평균소득은 2017년 3518만9831원에서 2018년 3646만7477원, 2019년 3743만5216원, 2020년 3828만1768원에 이어 2021년 처음 4000만원을 넘어섰다.

같은 해 최상위 0.1% 구간에 속하는 1만 9959명의 총급여는 1인당 9억5615만원이었다. 상위 1%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억1730만원이며 중위 50% 구간은 1인당 3004만원을 벌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선미 의원은 "문재인 정부 4년간 근로소득 증가세는 최저임금 인상 수혜층을 비롯한 중·하위 소득층의 소득 성장이 견인한 결과"라며 "코로나19 경제충격 이후 최근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계층 간 격차를 해소하고 근로소득을 증대시키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이슬기자

## 파리바게뜨, 제철딸기 사용한 '2023 딸기 페어'



파리바게뜨가 제철 겨울 딸기로 만든 디저트를 선보이는 '2023 딸기 페어'를 진행한다. 1일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매년 겨울 제철 딸기를 활용한 딸기 페어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빵과 생크림, 딸기를 조화한 라인업 13종을 소개했다. 먼저 크림과 생딸기를 더한 베이커리를 선보인다. 대표 제품은 ▲마블빵

### 딸기 베이커리 제품 선보여

에 딸기우유크림과 생딸기가 들어간 '생딸기 우유샌드' ▲브리오슈 속에 딸기필링과 생크림, 생딸기를 더한 '생크림가득 생딸기 마리토조' ▲마스카포네 크림에 딸기필링과 생딸기를 조화한 '마스카포네 크림가득 딸기맘모스' 등이다. 생딸기 장식을 더한 딸기 케이크도 선보인다. ▲타르트에 2단 치즈무스와 생딸기를 올린 프리미엄 케이크 '생딸기 레어 치즈 타르트' ▲생딸기 프레지에에 노산 딸기를 더한 '생딸기 프레지에' 등으로 구성했다. 상큼한 딸기를 간편하고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음료도 선보인다. ▲상큼한 딸기와 홈페이지 스타일의 굿벨런스 요거트 한 병을 같이 블렌딩한 '리얼 딸기 요거트 라떼' ▲상큼 달콤한 딸기 향미가 진하게 느껴지는 '리얼 딸기 라떼' 등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딸기 페어는 신선한 딸기와 베이커리의 절묘한 조합으로 매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즌별 제철 원료를 활용한 베이커리를 다양하게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유나 기자

## '한국 진출 20년' 벤츠코리아, 올해 신차 12종 출시

올해 한국 진출 20주년을 맞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가 올해 전기차를 중심으로 신차 12종을 출시한다. 아울러 벤츠는 한국 사회와 상생과 동반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벤츠는 1일 '럭셔리, 전동화 및 지속가능성(Luxury, Electrification and Sustainability)'을 주제로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사업 전략과 신차 출시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벤츠는 올해 2개 신차, 2개 완전변경 모델 및 8개 부분변경 모델 등 12개 신차를 선보인다. 신차 출시의 첫 포문은 지난달 31일 출시한 '더 뉴 EQS SUV'가 열었다. '더 뉴 EQS SUV'는 벤츠가 추구하는 럭셔리와 전동화 기술이 담겨 있다. 이 차는 벤츠가 개발한 전기차 전용 플랫폼 EVA2를 적용한 첫 번째 럭셔리 전기 SUV다. 고급스러운 실내 공간 및 역동적인 비율의 공기역학적 디자인, 뛰어난 주행 성능을 갖고 있다. 벤츠는 올해 하반기 '더 뉴 EQE SUV'를 출시한다. '더 뉴 EQE SUV'는 럭셔리 비즈니스 전기 SUV로 실용적인 실내 공간과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완전변경 모델 중에서는 글로벌 베스트셀링 중형 SUV인 GLC의 3세대 모델 '더 뉴 GLC'가 연내 출시된다. 이 차는 메르세데스-벤츠의 전동화 전략하에 모든 모델이 하이브리드로 구성될 것이다. 기존 모델 대비 크기를 키우고 새로운 내·외관 디자인이 반영됐다. 여기에 최신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패키지를 비롯한 다양한 첨단 주행 기술이 탑재됐다. 벤츠는 럭셔리 로드스터 SL의 7세대 모델 '더 뉴 메르세데스-AMG SL'도 상반기에 선보인다. 고성능 브랜드 '메르세데스-AMG(Mercedes-AMG)'가 독립적으로 개

### 올해 EQS·EQE SUV 통해 전기차 라인업 강화



발한 차량으로 오리지널 SL의 스포티함과 메르세데스-벤츠의 혁신 기술 및 AMG만의 강력한 주행 성능이 조화를 이룬다. 부분변경 모델은 총 8대가 새롭게 나온다. ▲컴팩트한 디자인에 강력한 파워트레인을 갖춘 GLA ▲넉넉한 실내공간과 다양한 편의장치를 탑재한 SUV 모델 GLB ▲온·오프로드를 넘나드는 실용성과 주행 성능을 모두 갖춘 모던 럭셔리 전기차 전용 플랫폼 EVA2를 적용한 최상급의 SUV 모델 GLS ▲컴팩트 쿠페 세단 CLA ▲진보적 디자인과 혁신 기술이 담긴 콤팩트 모델 A-클래스 해치백과 세단이 대표적이다. 벤츠는 R&D 강화를 통해 품질 개선에도 더 힘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국 벤츠 세일즈 부문 총괄 부사장은 "2014년 이후 지속

적으로 R&D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며 "올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율주행 등으로 연구 개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18년 사무실 규모와 연구 인력을 2배 이상 늘린 벤츠 R&D 코리아 센터는 올해 인력을 50%가량 추가 확대해 약 60명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 한편, 벤츠는 올해 한국 사회와 동반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벤츠는 올해 '메르세데스-벤츠 기브엔 레이스(Mercedes-Benz GIVE 'N RACE)'를 3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 참가자는 기존 1만 명에서 2배 확대해 2만 명을 모집한다. 이 행사엔 지난해까지 8만5000여 명이 참가했고, 행사를 통해 집계된 누적 기부금은 46억원에 달한다.

정승호기자



유통가, 신학기 맞아 마케팅 활발 유통업체가 3월 개학·개강을 앞두고 신학기 특수를 노린다. 각 유통업체는 온·오프라인에서 새 학기 수요가 늘어나는 상품군을 중심으로 할인행사 등 마케팅을 펼친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한 마트의 가방 코너 모습.

###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최대 3000만원 금리우대 대출

최대 3천만원까지 금리우대 보증부대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제도권 금융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13개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관계자 등과 1일 전국은행연합회에서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달 11일 정부가 발표한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 후속 조치다. 협약에 따라 중신용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비용 완화 및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1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사업자당 최대 3000만원 한도로 보증비용 상환(85%→95%), 보증료 우대(0.5%), 금리우대 혜택(일시상환 CD금리+1.5%포인트, 분할상환 CD금리+1.8%포인트 이내)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6개월 이상 영업중인 중신용(개인신용평점 710점 이상·839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세금채납, 사고·대위변제기업, 연체 중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중기부도 특례보증 등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경제상황 등을 지켜보며 소기업·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현기자

## 이케아의 달콤한 유혹...스웨덴 디저트 '셈라' 시즌 출시

### 스웨덴 부활절 단식 전 즐기는 대표 디저트

홈플러스 리테일 기업 이케아 코리아가 스웨덴 전통 디저트 '셈라'를 이번달 시즌 한정 메뉴로 선보인다고 1일 밝혔다. 셈라는 스웨덴 사람들이 부활절을 앞두고 단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음식을 마음껏 즐기는 '실컷 먹는 화요일(Fat Tuesday)'을 기념하며 맛보는 대표적인 디저트다. 생강과의 향료인 카다멈 맛이 가미된 생크림과 슈거파우더가 토핑돼 있다. 고소한 빵과 부드러운 크림이 어우러진 식감이 특징이다. 이케아 코리아는 셈라 출시와 함께 28일까지 세트 메뉴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이케아 패밀리 회원을 대상으로 평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셈라와 따뜻한 커피 세트를 특별가로 제공한다. 셈라의 달콤한 맛을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

할 수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슬비기자

